

현대 패션에 표현된 지속가능한 느린 디자인

이연희 · 이현아 · 박재옥[†]

한양대학교 의류학과

Sustainable Slow Design in Contemporary Fashion Design

Youn Hee Lee · Hyun Ah Lee · Jae Ok Park[†]

Dept. Clothing & Textiles, Hanyang University
(2006. 3. 31. 접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the idea of sustainable slow design by analyzing literatures and preceding cases, based on the external elements of a design including forms, the methods of expression, materials and colors. This study reviewed the previous literature of books and pictures related to the research for case studies and content analysis. Fashion books, magazines, and web-sites published from 2000 to 2005 were analyzed for this research. The sustainable slow design trends in fashion can be summarized as follow. The first is a timeless style which has sustain ability in design independently of the versatile fads and relies on functionality, serving the purpose of design. One of the examples is both clothes designed by Burberry and suits by Chanel. The second is a hand-touch style which the more time for outputs can be positively tolerated, in favor on eco-friendly design through the techniques of manual arts. The third is a renewable design which the combined values of design with reuse and renewal result in recreation of past ecology as shown in the technique of designs by mix & match. The forth is a transformable design which features the multi-purpose and multi-forms, eventually extending the life cycle of products. As a result of analysis of the four designs above, it can be inferred that the representation of past styles, the mixture of old design with new design, the appropriate combination of conventional fabrics with advanced ones, the ecological trends of sports look was emerging.

Key words: Sustainable slow design, Timeless style, Hand-touch style, Renewable design, Transformable design; 지속가능한 느린디자인, 타임리스 스타일, 핸드터치 스타일, 리뉴어블 디자인, 트랜스포머블 디자인

I. 서 론

산업혁명은 우리에게 과학기술혁명과 함께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주기도 하였지만 농업 중심의 사회를 공업중심의 사회체제로 변화시켰다.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로 인한 에너지 사용량의 급증으로 인구증가와 그에 따른 도시 집중화로 도시환경을 악화시켰으

며 1970년대 초에는 에너지 위기로 에너지 절감의 필요성을 대두시켰다(전소영, 1995). 이에 따라 20세기 후반에는 환경친화적의 개념이 본격적으로 부각되어 인간의 편리함만을 생각하던 기술은 자연환경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 첨단기술은 생산력과 편리함을 위한 수단이 아닌,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 환경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진정한 의미를 갖는 시대적인 패러다임이 형성되었다.

환경에 대한 관심고조와 환경파괴 위협으로부터

[†]Corresponding author

E-mail: jaepark@hanyang.ac.kr

지구를 지켜야 한다는 시대적 정신 속에서 생태계를 의미하는 ‘에콜로지(ecology)’의 등장은 순수한 자연의 모습을 부각시켰다. 이러한 에콜로지적 관점의 디자인은 1980년대 후기에서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에콜로지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대한 디자인 방법론으로 환경친화적 디자인(environment friendly design), 그린 디자인(green design), 지속가능한 느린 디자인(sustainable slow design) 등 여러 가지 명칭으로 내용 및 방향이 발전하고 있다. 특히 지속가능한 느린 디자인은 웰빙, 건강과 지속적인 삶을 추구하는 친환경적이고 합리적인 소비패턴을 의미하는 LOHAS(Lifestyle of Health and Sustainability) 등의 인간생활 및 환경을 인식한 트렌드와 함께 등장한 에코디자인의 용어로서, 21세기의 디자인계에 등장하였다.

이러한 에코 디자인과 현대 패션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20세기말에 등장한 에콜로지를 중심으로 패션스타일을 히피, 에스닉, 자연주의, 그린 디자인의 재활용 등의 테마로 나누어 연구된 선행사례가 대다수이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느린 디자인과 관련하여 패션에서는 패션에 나타난 느리게 살기 경향과 웰빙 패션에 관한 연구가 일부 있을 뿐 지속가능한 느린 디자인은 현재 다른 디자인 분야에서만 연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21세기 웰빙 시대에 맞춰 대두된 에코 디자인 경향인 지속가능한 느린 디자인의 특성을 현대 패션에 표현된 지속가능한 느린 디자인 사례를 찾아 조사, 분석해 보는데 있다. 패션은 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공유하는 생각이 드러나는 결과물의 하나이고,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를 반영하므로 패션에 나타난 에코 디자인 경향도 시대, 문화적 배경에 따라 공존함과 동시에 변화가 되었음을 규명하는 것은 의의 있는 연구라 보여 진다. 또한 새로운 세기의 시점인 현재에 있어 패션 디자인의 새로운 에코 디자인의 경향을 파악할 수 있는 연구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문헌적 연구, 관련 사진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하는 사례연구와 내용분석을 병행한다. 따라서 현대 패션에서 나타나는 지속가능한 느린 디자인의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21세기 이후인 2000년부터 2005년까지의 패션관련 서적, 국내의 패션잡지, 국외 컬렉션 자료, 패션에 관련한 인터넷 사이트 등을 이용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에코 디자인

에코 디자인은 에콜로지에서 유래한 ‘에코(eco)’와 ‘디자인(design)’의 합성어이다. ‘에콜로지(ecology)’는 생물체가 생활해가는 상태, ‘생태학’이란 뜻을 가지고 있으며, 자연의 생태계를 연구하는 학문을 말하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는 그리스어의 집, 가정, 살아갈 공간을 의미하는 ‘오이코스(oikos)’와 이성, 과학을 의미하는 ‘로고스’의 합성어로, 1886년 독일학자인 에른스트 헤켈(Ernst Haeckel)에 의해 처음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헤켈은 ‘오이코스(oikos)’를 따서 만든 오에콜로지(oekologie)라는 용어를 동물과 유기적 환경, 비유기적 환경과의 관계’에 적용하기도 하였다(전소영에서 재인용, 1995).

에코 디자인은 디자인을 통해 환경과 생태학적 요소를 고려하여 인류의 환경과 미래세대에 온전한 지구를 물려줄 수 있도록 자원과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과 자연적 과정을 통한 지속가능한 지구환경의 보전을 위한 제반 디자인 활동이나 디자인 경향이라 할 수 있다(복식사전, 1991; 전종찬, 2004). 또한 제품의 기본 설계요인에 환경이라는 새로운 요소를 통합하고 고려함으로써, 환경, 경제적으로 우수한 제품을 설계하기 위한 기법이다. 즉, 에코 디자인은 새로운 제품설계 기법이 아니라 기존의 제품개발 과정을 그대로 따르면서, 단지 특정 과정에서 환경을 추가적인 고려요소로써 반영하는 것이다.

권영걸(2001)은 사회 생태학적 균형(social-ecological balance)이라는 개념 아래 환경의 보존과 개선이라는 측면과 ‘삶의 질’의 향상과 사회 전체의 공동선지향이라는 측면이 동시에 추구되는 것이 에코 디자인이라고 정의하였다. 특히 에코 디자인에서는 모든 제품이나 구축물이 아름다운 외관으로 평가되기보다는 얼마나 ‘인간과 환경의 건강’을 구현할 수 있는 디자인이냐에 따라서 평가된다고 하였다.

에코 디자인은 1970년대 이후 환경보존을 위한 이상적인 해결 방안으로 재활용과 재사용이 제시되면서부터 대두되기 시작했다. 개인주의가 팽배해진 1980년대에 환경오염이 심각해지면서 후반에 접어들면서부터는 환경오염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시작하였고, 디자인분야에는 녹색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그린 디자인이 대두되었다(전소영, 1995). 1990년대에는 환

경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으며 에코 디자인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즉, 심각한 환경문제의 출발은 산업화의 시대와 그 축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으며 현대의 디자인은 환경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2000년대 현재에는 지속가능한 느린 디자인이라는 용어가 삶에 질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웰빙의 문화와 함께 나타나고 있다.

2. 지속가능한 느린 디자인

1) 지속가능한 느린 디자인의 발생배경

지속가능한 디자인은 80년대 후기/90년대 초기에 발달시기를 맞이했다. ‘지속가능한’이란 용어의 유래는 1972년 ‘로마클럽’의 제 1차 보고서인 ‘성장의 한계’에서 환경과 개발에 관한 강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처음 사용하였다(전종찬에서재인용, 2004). 1987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WCED)가 작성한 브룬트란트 보고서 ‘우리 공동의 미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정의했으며 동시에 정부, 산업, 학계에 새로운 집중점을 마련해 주었다(Between Art & Business DESIGN, 2003).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미래세대를 위한 자원 능력을 잃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뜻하며, 경제, 사회, 환경 등 분야에서 재생산이 가능하도록 절제된 상태의 개발을 의미한다(Alastair Fuad-Luck, 2002). 지속가능한 디자인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현재의 환경을 어떻게 하면 현대와 다음 세대가 함께 향유할 수 있도록 보존하고 물려줄 수 있는가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과거에서부터 사용되어진 ‘지속가능’하다는 표현이 21세기에는 에코 디자인의 주된 용어로 ‘느린’이란 개념과 함께 사용되고 있다.

2002년 ‘디자인과 발전’이라는 제목의 학술회의에서 알라스테어 푸에드 룩(Alastair Fuad-Luck)에 의해 느린 디자인은 소개되었다. ‘느린 디자인’은 인간의 그리고 인도적인 진보를 위한 도구로서 디자인이 가지고 있었던 긴 역사적 역할을 고찰하고, 미래를 추측하기 보다는 ‘계속되는 현재’를 다루기 위해 노력하며 속도의 줄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Alastair Fuad-Luck, 2002). 2003년 국내 ‘DESIGN’지에서는 ‘Design for sustainability, 디자이너가 지구를 살릴 수 있다’라는 명제의 특집 기사를 다루면서 알라스테어 푸에드 룩의 ‘Slow Designing the (r)Evolution’라는 제목의 글을 소개하였으며, 지속가능한 느린 디자인 선

언문을 18조항을 공지하였다(Between Art & Business DESIGN, 2003). 이러한 ‘느린’이라는 개념은 속도가 강조되는 현대 사회에 대한 대안적인 흐름으로, 무조건 빠른 것보다는 느림을 선택하는 사회, 문화적 전환에 걸쳐 나타났으며, 여기서의 ‘느림’의 경향은 인간을 위한 디자인과 함께 지속가능성을 강조한 정의로 볼 수 있다. 또한 이 같은 제품의 수명의 연장의 중요성은 소비량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환경보호 개념의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고 보여 진다.

2) 지속가능한 느린 디자인의 특성

Alastair Fuad-Luck(2002)의 연구에 따라 지속가능한 느린 디자인의 특성을 살펴보면 첫째, timeless style로 시대적 감각의 흐름을 타지 않는 스타일을 개발하고 전통성을 지속하는 것이다. 유행만을 따르는 근시안적인 디자인은 자원을 낭비하고 일시적인 상품디자인만을 추구하게 되는 요인이 되므로 형태적 폐기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시대적 흐름을 타지 않는 스타일은 제품의 수명을 연장시킨다. 둘째, renewable design로써 재 활용할 수 있는 재생 가능한 재료의 연구 개발과 재활용 재생산에 디자인적인 가치를 더한 디자인을 제작하는 것이다. 버려진 재료도 까다로운 공정을 거쳐 새로운 제품으로 재탄생하는 것은 쓰레기에 불과한 것을 재창조하여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 수 있다. 셋째, multi-functional design으로 첨단기술로 생산되는 신상품으로 인해 기존의 상품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변형이 쉽거나 부품을 대체해 사용할 수 있는 다기능적인 상품을 디자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불필요하게 제품을 낭비하여 여러 제품군으로 확대하기 보다는 하나의 잘 만들어진 상품에 필요한 여러 기능들을 통합하는 것이 자원의 낭비를 막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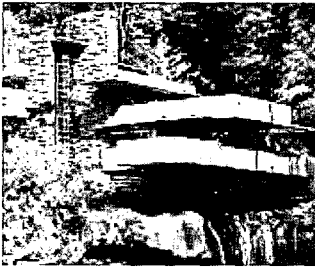
또한 지속가능한 느린 디자인은 소비 지향적인 형태를 지적하고 있다. 현대는 소비 지향적이며 특히 풍요로운 물질적 혜택을 누리고 있는 선진국 국민의 소비가 야기하는 공해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우리가 사는 지구를 지키면서 어떻게 이러한 소비욕구에 부응하고 삶의 질적인 만족감도 보장받을 수 있는가 하는 측면으로 해결책을 모색해야하며, 이를 위해 우리가 기본적으로 중점을 두는 것으로는 첫째, 제품의 수명의 연장, 둘째는 사용빈도의 강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품형태를 대여 서비스의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다(Between Art & Business DESIGN, 2003).

디자인과 소비의 측면에서 고려된 timeless style을 건축의 측면에서 보면, 근대 건축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Frank Roid Light)의 낙수장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는 1935년에 세워졌으며 소리와 빛, 시각적 촉감을 모두 활용한 건축물이다(그림 1). 또한, 1900년에 이탈리아 밀라노에 세워진 대형 상점으로 이용되고 있는 비토리오 엠마누엘 갈레리아(Vittorio Emmanuele Galleria)건물과 200여 년간 성당으로 사용되고 있는 세인트 폴 대 성당도 아직 까지도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timeless style의 건축 양식이다(그림 2).

시대적 감각의 흐름을 타지 않는 스타일은 제품에 서도 볼 수 있는데, 뱅앤올룹슨(Bang & Olufsen)사의

오디오 ‘베오 시스템 2500’은 짧게는 10년에서 길게는 50년 이상의 형태적 수명을 갖는 생태적 디자인의 제품으로 형태적 폐기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으며, 격을 갖추고 있는 대표적인 제품 중 하나이다(그림 3). 즉, 형태적 수명을 오래 갖는다는 측면에서 격조 높은 제품은 디자인의 변화 없이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그림 4>는 1908년에 디자인된 몽블랑 만년필로 제작자의 섬세함과 정성이 깃들여 있으며, 1925년에 제작된 디자인적 가치에 효율성까지 더한 폴 헨닝슨의 조명등 또한 꾸준히 판매되고 있다(그림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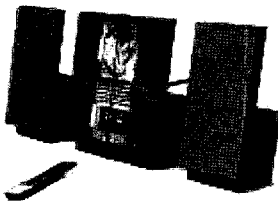
둘째, 전종찬(2004)의 에코 디자인 체계에 근거한 renewable design은 재활용 재생산에 디자인적인 가치를 더한 디자인이라 할 수 있다. <그림 6>은 가정에서



<그림 1> 낙수장, Frank Roid Light
자료출처: Victor Papank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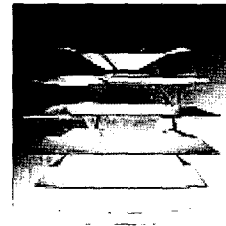
<그림 2> 세인트 폴 대성당
자료출처: Victor Papank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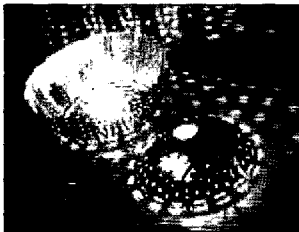
<그림 3> 베오시스템 2500



<그림 4> Montblanc 만년필
자료출처: Victor Papank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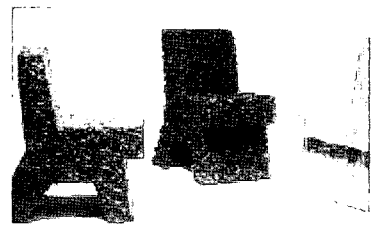
<그림 5> Paul Henningsen



<그림 6> 02글로벌네트워크
뿔기를 이용한 조명 디자인
자료출처: Eco-design handbook, 2002



<그림 7> 우유병 조명
자료출처: Between Art & Business
DESIGN, 2003



<그림 8> 건축와 송진 벤치
자료출처: Eco-design handbook,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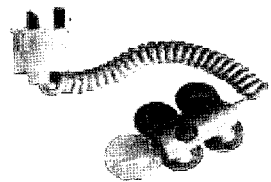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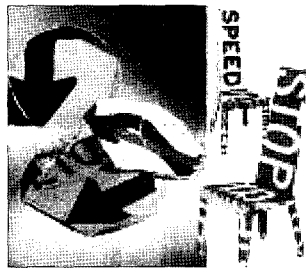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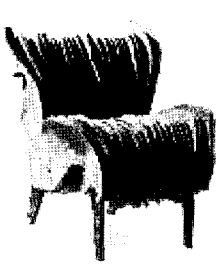
흔히 사용하는 짚기를 사용하여 조명으로 재디자인한 02글로벌네트워크에서 보인 작품이고, <그림 7>은 드록 디자인사의 Tejo Remy의 우유병 조명이다. 버려진 플라스틱 우유병을 이용해 조명을 만들었는데 이는 현대 디자인이 재활용재료를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하게 웅변해주고 있다. 환경친화적 제품만을 고수하는 드록 디자인사의 제품들은 특별한 디자인이 아닌 듯 하면서도 매우 고감성의 네추럴한 생태학에 기초한 디자인을 발표하고 있는데, <그림 8>은 천연 자원인 건조와 송진으로 만든 벤치이다. <그림 9>은 미국의 건축가 게리에 의해 디자인된 의자는 주름진 두꺼운 골판지를 여러 층으로 접착하여 만들어졌으며 재생이 가능한 재료가 사용되었다.

이러한 버려진 재료를 까다로운 공정을 거쳐 힘겹게 새로운 제품을 재탄생 하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들은 늘 새로운 소재를 찾아다니는 보리스 벨리(Boris Valley)는 교통 표지판을 활용한 트레이, 버려진 교통 표지판과 알루미늄을 주재료로 사용하여 제작한 기능적인 의자<그림 10>를 제작하였다. 이렇듯 쓰레기로 불과할 수 있는 소재들을 창조적인 디자인감각으로 다시 변형한 이러한 renewable design은 가장 간단하면서도 친환경적인 사고방식에 의한 의식의 전

환을 보여준다.

셋째, 지속가능한 느린 디자인의 또 다른 특징적 요소는 다기능성을 들 수 있는데, 이는 급변하는 현대 생활 속에서 중요한 원리로 작용하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생활 속에서 현대인들에게 적합한 에코 디자인 경향으로 볼 수 있다. <그림 11>은 스웨덴에 위치한 Erick Espmark사의 소형 전등인데, 이는 못 쓰는 전화선을 이용하여 어디에서나 부착가능하며 이동이 용이한 다기능성의 제품으로 재활용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림 12>는 많은 수납공간을 이용한 가구로써 선반과 의자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림 13>은 이동이 가능하며 장소의 공간에 따라 의자의 길이를 조절할 수 있어 실용성과 다기능성을 만족하는 디자인 형태이다. <그림 14>는 선반의 역할을 하면서 조명의 효과를 볼 수 있으며, 필립스 디자인인 이 커피메이커는 한번에 두 번의 커피를 뽑을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그림 15). 이렇듯 multi-functional 효과는 기능성을 기초로 사용의 연장을 가져올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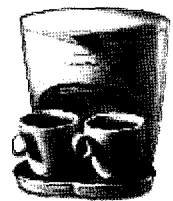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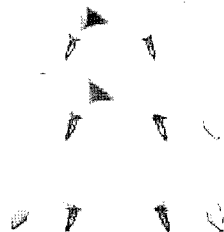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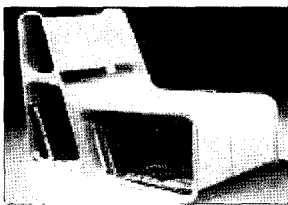
지속가능한 느린 디자인 경향의 요소인 timeless style, renewable design, multi-functional design을 사례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지속가능한 느린 디자인은 소비



<그림 9> 두꺼운 골판지 재생 의자
자료출처: Eco-design handbook, 2002

<그림 10> 교통표지판 재료의 의자
자료출처: Between Art & Business DESIGN, 2003

<그림 11> 다기능성의 전등
자료출처: Between Art & Business DESIGN,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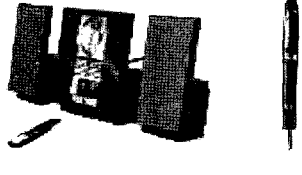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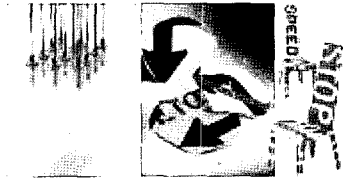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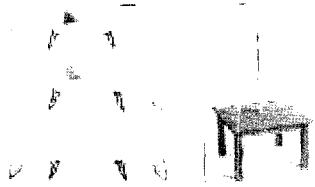
<그림 12> 수납기능의 의자

<그림 13> 다기능성의 의자
자료출처: Eco-design handbook, 2002

<그림 14> 다기능성의 조명
자료출처: Eco-design handbook, 2002

<그림 15> 커피메이커

<표 1> 현대 디자인에 표현된 지속가능한 느린 디자인의 특성

	Timeless style	Renewable design	Multi-functional design
사 례			
형 태	기능에 따른 기본적인 형태로 형태적 수명이 오래 유지됨	재사용에서 응용될 수 있는 자유롭고 단순한 형태	단순하고 합리적인 형태의 유지로 실용성, 다기능성을 갖춘
소 재	견고성을 지니며 제품디자인에 꾸준히 사용되는 소재	재사용이 가능한 모든 소재 Renewable된 신소재 이용	테크니컬 소재, 네츄럴 소재 전통과 인공 기능의 조화
색 상	검정, 아이보리 등, 모노톤과 그레이, 베이지 등 유행을 타지 않는 색조	재사용하여 바랜 듯한 색상 표현 및 소재에 따른 다양한 색상	모노톤, 파스텔색 등의 하이테크적인 느낌을 줄 수 있는 밝은 색조

형태를 생각하고, 장기적인 환경의 안녕(well-being)에 주력하는 디자인이라 할 수 있으며, 환경과 관련한 디자인 경향들이 각기 다른 명칭으로 불리지만 궁극적으로는 지속적인 인간의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디자인을 한다고 볼 수 있다.

III. 현대 패션에 표현된 지속가능한 느린 디자인 특성

본 연구에서는 21세기 패션에 표현된 지속가능한 느린디자인 경향을 조사분석하기 위하여 2000-2005년의 범위에서 Alastair Fuad-Luck(2002)의 연구사례에 따라 timeless, renewable, multi-functional의 특성을 요인으로 정하여 패션사례를 수집하였다. 실증적 자료의 수집을 위해 각 요인마다 약 100장 정도를 예비적으로 추출한 후 시각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소재는 패션자료에 명시가 되어있는 사례만을 선정하여 요인별로 나누었다. 자료수집에 있어 지속가능한 느린 디자인은 400개 정도로 최종적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실증적 자료 분석의 분석을 위해 의류학 분야의 디자인 전공 박사 이상 7인을 포커스 그룹으로 설정하여 수집된 패션자료에 관한 설문조사를 통해 비교적 빈도수가 높은(n=4 이상)자료를 채택하여 분석

하였으며, 본 연구 주제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였다. 1차적으로 수집결과, 패션에서의 지속가능한 느린 디자인 경향은 timeless style, hand-touch style, renewable design, transformable의 요소로 분류할 수 있었다. 이는 트렌드 분석기관(인터패션플래닝, CFT, 삼성디자인넷)에 따른 2003년도부터 2006년까지의 패션 트렌드와 에코경향을 관계 분석하여 도출하게 된 용어이며, 전문가 집단을 Focus group으로 하여 의견을 종합하여 객관성을 높였다. 지속가능한 느린 디자인 경향은 21세기에 대두된 용어이므로 2000년대의 패션을 통하여 디자인 특성을 고찰, 분석하였다.

1. Timeless Style 경향

빅터(1985/1995)에 의하면 디자인에 있어 형태는 일정한 수명을 가지고 있는데, 형태적 수명과 관련하여 패드(fad), 패션(fashion), 트렌드(trend), 스타일(style)로 나누어, 각각의 형태적 수명 연한에 대해 말하고 있다. 수명 연한이 제일 짧은 패드부터 스타일까지를 볼 때 비교적 수명형태가 긴 트렌드와 스타일을 비교해 보아도 하나의 고정적으로 되어있는 스타일은 형태상 거의 변함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패션에서의 timeless 경향은 시대적 감각의 흐름을 타

지 않는 스타일로 유행에 민감하지 않은 클래식 스타일이나 단순한 실루엣의 특성을 도출할 수 있다.

패션용어에서 클래식이라는 의미를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유행 경향을 초월한 스타일(패션 큰 사전, 1999)로써, 적은 변화만으로 장기간에 걸친 시대를 지나면서 다수에 의해 수용되어진 의복 스타일이며, 시대성을 초월하는 보편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또한 강진석(1990)은 클래식의 스타일을 깨끗하게 잘리고 인체에 순응하는 선을 가진 스타일로서 디자인의 단순성이 돋보이는 스타일이며, 유행에 따른 디테일의 변화에 의해 약간의 변형은 수반되지만 전체적인 실루엣은 기본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지속성을 나타내며, 재단이 절제된 형태 즉, 구조적인 선이 약화된 형태를 통하여 합목적성을 바탕으로 한 기능주의를 추구하는 스타일이라고 하고 있다. 버버리사에서 만든 트렌치코트는 버버리 코트라는 명칭과 함께 전통적이고 기본적이지만 지속성을 가지고 있다(그림 16). <그림 17>은 버버리 고유의 오버체크에 약간의 기능성 록을 포함한 조끼이다. 전통적이고 기본적인 느낌을 그대로 살리면서 버버리의 전형적인 형태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으며, <그림 18>는 베르사체의 원피스 형태로써 보수적인 하운드투스 체크가 가미된 품위와 안정감 있는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오랫동안 지속성을 유지하는 스타일의 샤넬룩은 하나의 스타일로 시대를 초월한 timeless style이라 할 수 있다. <그림 19>은 샤넬 수트의 기본적인 스타일로 장식적인 브레이드와 함께 스커트와 재킷의 기본형태의 변화가 거의 시대적 변화와 상관없이 지속적임을 볼 수 있다. 이미숙(1997)은 샤넬 스타일이 시대를 초월해서 지속성을 갖는 이유는 단순함에 의한 사치스러

움을 표현하고자 하였다고 하고 있으며, 여기서 단순성은 필요 없는 사실과 왜곡적인 표현의 배제를 말한다. 샤넬 스타일의 테마에 영향을 받은 디자이너로는 조르지오 아르마니(Georgio Armani), 도나 카란(Donna Karen), 캘빈 클라인(Calvin Klein), 랄프 로렌(Ralph Lauren) 등이 있으며, 절제된 형태의 패션 스타일을 고수하며 약간의 변형만 가하고 있다. 또한 timeless style은 유행에 민감하지 않은 색감을 많이 가지고 있다. 지속적으로 유행흐름을 타지 않는 색상으로 밤색계열의 톤 온 톤 배색으로 차분한 느낌과 모노톤의 계열로 꾸준히 입혀져 오고 있는 스타일로 색의 단순성과 지속성을 볼 수 있다.

이러한 timeless style은 패션에서는 형태상의 변화가 거의 없는 클래식한 스타일로 디자인의 단순성과 전통성을 들 수 있었으며 제품, 건축의 디자인 분야에서도 도출되었던 시대적 감각의 흐름을 타지 않아 수명연장의 효과를 가지고 오는 에코 디자인 경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Hand-touch Style 경향

Hand-touch style의 특성은 앞서 그린 디자인 경향에서도 볼 수 있었는데, 수공예적 기법을 통한 에코디자인 경향을 가지고 있다. 이는 결과물을 얻는데 시간이 더 걸리는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느리게 살기가 영향을 미친 패션스타일로도 볼 수 있다.

수공의 디테일이 가미된 스타일들은 히피스타일을 포함하여, 보헤미안, 그리고 에스닉풍 트렌드의 재등장과 함께 가장 뚜렷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규화(1991)는 디자이너와 예술가들이 공통적으로 당



<그림 16> Burberry '03 F/W
자료출처: www.cft.or.kr



<그림 17> Burberry '01 F/W
자료출처: SportsTech



<그림 18> Bersace '04 S/S
자료출처: Collections



<그림 19> Chanel '04 F/W
자료출처: www.cft.or.kr

면하는 문제는 특유의 소재개발과 기술의 노하우, 고유의 이미지 창조라고 한 바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기존의 소재를 통해 수공예 기법으로 자유로운 표현방식으로 독창적인 조형미를 창출한다.

김윤희(2002)에 의하면 수공예적 터치는 2000년에 와서 강화되었다고 하고 있다. 특히, 2002년 F/W 시즌 컬렉션에서는 수공예적인 느낌의 디테일이 대거 등장하였는데, 패치워크(patch-work), 비딩(beading), 십자수, 손뜨개 등이 시도되었으며, 때로는 한 달 여 동안 여러 번의 힘든 공정을 거쳐 제작되기도 하고 지속적인 손길과 인내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디자이너들은 창의적인 수공예적 느낌의 표현을 위해 기꺼이 시간을 투자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20>은 핸드 니트 터치의 가디건으로 니트 제품은 현대에 패션 유행으로 자리 잡은 아이템기도 하다. 디테일의 장식으로 자수를 놓는 것도 hand-touch의 특성이라 할 수 있는데, <그림 21>는 굵은 실은 이용하여 자수를 전체적인 무늬처럼 놓았다.

또한 hand-touch 감각에서는 이러한 시간의 가치와 함께 민속적인 요소도 많이 볼 수 있다. 안토니오 베라르디(Antonio Berardi)는 부분적으로 모피를 트리밍하여 민속적이고 지역적인 색채를 전달하고 있고 <그림 22>, 흰 바탕에 하늘색으로 수놓인 문양은 이러한 느낌을 더욱 강하게 표현한다.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은 동양적인 자수와 술 장식을 통하여 hand-touch의 느낌을 주고 있다(그림 23). 앞서 살펴본 지속가능한 느린 디자인의 요소인 hand-touch 패션에서는 Pierre Sansot(쌍소, 1998)의 '느림'의 중요성으로도 해석 되어질 수 있다. 이는 수공예 기법이 정성과 시간

이 오래 걸리며, 속도제일주의를 지양함을 볼 수 있고, 패션을 통해 노동과 시간의 가치를 다시 재평가하여 인식하게 되었음을 볼 수 있다.

3. Renewable Design 경향

패션에서의 renewable 경향은 재생산에 디자인적 가치를 부여했으므로 90년대의 그린 디자인경향인 리사이클링 패션(이현아 외, 2005)과 유사한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renewable은 패션은 recycle의 일반적인 특성을 가지고 2000년대의 패션사례를 통해 분석, 고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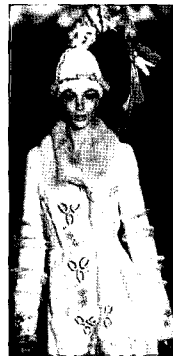
패션에서의 renewable 경향은 재사용을 통한 디자인의 재창조라 할 수 있는데, 표현기법으로 mix & match(믹스 앤 매치)기법이 많이 사용하여 다른 소재와 형태의 과장을 통해 새로운 옷으로 재구성 시키고 있다. <그림 24>는 jean(진)의 고유 브랜드인 Levi's 청바지의 뒷면의 한 면을 다른 질감의 소재와 콤비네이션 하여 전위적인 느낌의 롱스커트 형태를 표현하고 있다. <그림 25>은 투피스의 원형에 진 소재를 이용하여 어깨부분, 치마 아랫단에 장식적인 효과를 주고 있으며, 포켓(pocket)같은 디테일적인 면도 진 소재를 이용하여 전체적으로 믹스 앤 매치를 하고 있다. 이렇듯 패션에서의 renewable 경향은 소재 자체를 이용한 표현기법을 볼 수 있으며, 재활용 차원에서 못쓰는 오브제를 장식적 효과로 이용한 사례를 볼 수 있다. John Galiano는 플라스틱 사탕 통을 모자로 사용하고, 전체적으로 흰 소재를 이용해 레이어드 하여 여러 일상용품들을 장식적으로 사용한 beggar look을 표



<그림 20> Dolce
Gabana '04 F/W
자료출처: www.firstview.com



<그림 21> Alexander
McQueen '03 F/W
자료출처: www.cft.or.kr



<그림 22> Antonio Berardi
'02 F/W
자료출처: www.firstview.com



<그림 23> Alexander
McQueen '05 S/S
자료출처: www.cft.or.kr



<그림 24> Comme des garçons '05 F/W Collections



<그림 25> John Galiano '05 S/S
자료출처: www.cft.or.kr



<그림 26> John Galiano '05 S/S
자료출처: www.cft.or.kr



<그림 27> Hussain Chalayan '02
Eco-Design hand book

현하였다(그림 26).

텐셀은 환경친화적 소재의 대표적으로 현대에 와서는 디자인적인 경향이 강해졌다 할 수 있다(그림 28). Hussain Chalayan은 텐셀을 이용한 원피스 작품을 발표하여 전위적인 느낌의 Hussain Chalayan만의 독특한 느낌의 디자인 형태를 구사하고 있다. 환경 친화적인 소재인 텐셀은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다. 대표적 브랜드로는 리바이스의 engineered jean을 들 수 있는데, 리바이스의 new line인 엔지니어 진은 새로운 봉제법과 텐셀을 사용함으로써 renewable design을 구현하고 있다.

4. Transformable design 경향

패션에서의 transformable design 경향은 이론적 고찰에서 제품, 건축 등의 디자인 분야에 multi-functional 개념으로 나타난 지속가능한 느린 디자인의 요소를 패션의 용어에 맞게 정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목적에 따라 변형할 수 있고 원형으로 회복되는 복식을 나영원(2003)의 연구에와 같이 트랜스포머블(transformable)로 정의하였으며, transformable design의 경향을 multi-functional적인 일반적인 특성을 참조하여 2000년대의 패션사례를 분석, 고찰하였다.

이 밖에 transformable의 동일한 의미의 차원으로 사용된 용어는 ‘몇 개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디자인 된 복식’이라는 의미의 트랜스포메이션(transformation)이 있으며, 에코 패션디자인의 대표적인 디자이너라 할 수 있는 Issey Miyake는 트랜스포머(transformer), Herold Koda는 트랜스폼(transform)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나영원에서 재인용,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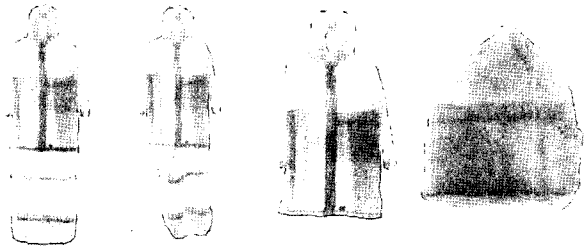
지속가능한 느린 디자인 경향 중 transformable design은 21세기 현대 패션에서 뚜렷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 요소로서, 복식의 여러 가지 변형을 미학적으로 연구한 나영원(2003)은 패션디자이너들도 근본적인 대책으로서 하나의 복식이 여러 가지 용도로 변형됨으로써 자원절약과 폐기물의 감소효과를 줄 수 있는 복식을 디자인하고 있다고 하였다. 즉, transformable design의 특성은 여러 가지 목적에 따라 변형이 가능하고, 복합적인 기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복식이 그 용도를 바꾸며 다기능적인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 28>는 그리핀사의 베어스킨(bearskin) 파카인데 착용자를 어느 환경에서나 보호한다. 이 자켓은 파카, 판초, 러그로도 사용될 수 있다. 솔기를 따라 지퍼를 내리면 판초가 되며, 거드랑이 밑의 지퍼를 내리면 편편한 러그가 된다. <그림 29>도 복식기능이 소품기능으로 변형되는 유형으로는 재킷과 가방으로 분리되어 슬리핑백이 되고 있으며, 샤넬도 일부 슬리핑백과 일부(duvet)코트의 기능을 하는 올인원 패딩 의상<그림 30>을 발표하였다.

패션에서의 transformable 경향은 앞서 살펴본 도구로의 변형이나 보호성의 측면 외에도 착용자의 연출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변화를 구현 할 수 있다. 획기적이고 에코 디자인과 관련이 깊은 이세이 미야케는 A-POC making이라는 재단법을 통해 옷의 다양한 형태를 구현하도록 하였다. <그림 31>와 같이 커팅을 통해 다양하게 옷의 길이변화를 비롯해 형태를 자유로이 바꿀 수 있는데, 매장 안에서 소비자의 욕구에 맞게 옷가지들의 꼬트머리를 자를 수 있게 해준다.



<그림 28> Jeff Griffine, 2000, Sportstech



<그림 29> CP Company 2001, The Super modern Wardrobe



<그림 30> Philips design, '02 Sportstech



<그림 31> John Ribbe, '01 JohnRibb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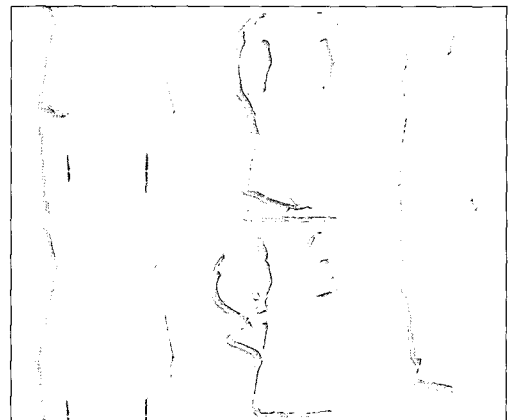


<그림 32> Issey Miyake '04 F/W www.firstview.com

John Ribbe의 드레스는 착장방법에 따라 단순하고 현대적인 모습으로 컬러의 트랜스포머블을 표현하고 있다(그림 32). 거의 스트레이트 실루엣에 가까운 세 가지 칼라의 몸판 각각이 단위가 되어 그것을 연결함에 따라 세 가지 다른 컬러의 원피스로 변형된다. 이렇게 옷 자체가 변형되기도 하며, 한 가지 복식 내에서 분리, 조합되는 탈착개념의 디테처블의 효과도 형태변화를 구현할 수 있는데, <그림 33>는 햇빛에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썬캡을 도구로써 탈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다.

Transformable design은 시대적 흐름에 따른 에코 디자인적 측면에서 두드러진 차별성을 볼 수 있었다. 다양한 기능과 전통적 소재와 첨단소재의 사용, 독특한 재단법 등에 의한 이러한 요소들은 패션영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과거의 스타일 을 새로운 기술력의 재단, 조립, 세부요소들과 결합함으로써 과거, 현재, 미래의 결합을 추구한다고 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이 현대 패션에서 지속가능한 느린 디자인



<그림 33> Issey Miyake A-poc making, '02

경향은 timeless style, hand-touch style, renewable design, transformable style로 분류할 수 있었으며, 디자인의 특성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현대 패션에 표현된 지속가능한 느린 디자인의 특성

	Timeless style	Hand-touch style	Renewable design	Transformable design
형태 및 표현 기법				
	적은 디테일 테일러드 슈트 디자이너 브랜드의 고유 감각 이 시대적 흐름을 타지 않음, 실루엣의 과장 없음	자수, 레이스, 비즈(Beads), 아플리케 핫픽스(hotfix) 등의 핸드터치 디자인, 요철감	mix & match, 형태의 재구성, 프린트를 통한 버려진 오브제의 재이용	디테일 조작에 의한 변형, 탈부착 기능으로 형태변화 가능 도구로의 변형 재단에 의한 형태변화
소재				
	울, 실크, 면 등의 천연섬유 등 꾸준히 사용되고 있는 소재	핸드니트, 크로셰 등의 니트 소재 코튼 레이스, 모직물,	재사용이 가능한 모든 소재 renewable된 신소재 이용 (탄셀, 부직포)	테크니컬 신소재 전통 직물과 인공 기능의 조화
색상				
	모노톤과 그레이, 베이지 등 유행을 타지 않는 색깔, 클래식한 격자 무늬와 색의 조화 (하운드투스 등)	멀티 컬러의 문화적인 색채 소재에 따른 다양한 색상 표현 가능	표현 및 소재에 따른 다양한 색상 재사용하여 바랜듯한 색상을 가지고 있음	스포츠룩의 영향, 브라이드 컬러가 많음, 형태의 변화에 따라 색상의 다양성을 구현할 수 있음

IV. 결 론

본 연구는 21세기 웰빙 시대에 맞춰 대두된 지속가능한 느린 디자인의 특성을 분석하여 패션에서의 시대적 변화에 따른 에코 디자인의 경향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지속가능한 느린 디자인은 21세기 이후에 사용되는 용어로 패션에서의 느린 디자인 경

향의 분석을 위해 2000년-2005년대의 패션자료를 통해 디자인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 패션에 나타난 느린 디자인 경향을 timeless style, hand-touch style, renewable design, multi-functional design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첫째, timeless style은 시대적 감각의 흐름을 타지 않고 유행을 타지 않는 디자인으로 이는 디자인의 단

순화와 함께 유행을 타지 않는 스타일로 볼 수 있는데 약간의 디테일적인 측면은 변화한다 하더라도 과거의 패션과 많은 변함이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패션에서의 timeless style은 유행에 민감하지 않은 클래식 스타일이나 단순한 미니멀리즘 실루엣의 형태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실용적 가치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소재와 색채에 있어서도 언제 착용해도 무난한 모노톤과 클래식한 조형미를 가지고 있는 격자 무늬 등, 유행에 민감하지 않으며 과거부터 꾸준히 사용되어지는 소재인 면, 울, 실크, 가죽 등의 소재의 사용은 지속가능한 디자인 경향을 보여주고 있었다.

둘째, hand-touch design은 수공예적인 요소와 함께 느리게 살기 경향을 보여주는 디자인 경향이다. 재사용이 가능한 소재의 니트 의류와 함께 아플리케, 십자수, 손뜨개, 핫 픽스, 자수, 트리밍 등 다양한 표현기법에서 큰 특징을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수공예적 터치 재료에 따라 장식적인 원색부터 단조롭거나 바랜듯한 색 등 여러 색상을 표현할 수 있고, 형태상으로는 문양과 장식적인 면이 돋보인다. 이 같은 hand-touch design은 과거에서부터 전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에코 디자인의 경향으로 복고적 현상과 시간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특성을 볼 수 있다.

셋째, 패션 표현된 renewable design은 recycling 패션과 유사하나, mix & match 기법을 이용한 표현기법과 형태면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90년대의 recycling 패션은 펑크스타일의 요소가 형태 및 표현기법에서 많았지만 renewable design은 미적인 감각을 더 추구하여 완성된 디자인적 가치를 높게 보여주고 있다. 즉, 재이용과 재활용측면에서 지속가능하게 패션을 재구성하도록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넷째, transformable design은 다양한 목적에 적합하도록 디자인되고, 형태의 변화와 함께 기능적인 특성을 가지는 패션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스포츠룩에서 그 특성이 많이 나타났다. 소재 경향은 일반 소재부터 테크니컬 직물까지 다양하게 사용함을 볼 수 있었고, 색상은 강한 역동성을 보여주는 브라이트 컬러가 많이 나타났다. 특히 형태의 특성이 제일 눈에 띄게 나타났는데 리버시블 형태부터 이세이 미야케의 'A-Poc' 메이킹을 통한 형태상의 변화, 탈부착이 가능한 디테일의 이용, 유품성에 맞게 제작된 소품으로의 변화 등 목적에 따라 변형이 가능하고, 복합적인 기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2000년대 이후에 급증한 에코디자인 특성이라 볼 수 있다.

21세기는 고급의 감성과 고품질의 디자인을 원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삶을 추구하는 친환경적 경향은 계속되어지리라 보여진다. 이러한 시점에 지속가능한 느린 디자인은 환경문제에 대한 하나의 해결방법과 현대의 생활코드인 웰빙 시대에 맞춰 인간과 다양한 현대인의 욕구에 맞게 나타난 다의적인 방법을 제공해주는 가치 있는 디자인 형태라 할 수 있겠다.

참고문헌

- 강진석. (1990). *샤넬복식에 나타난 기능주의와 클래식스타일에 관한 고찰*.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권영걸. (2001). *공간디자인 16강*. 서울: 도서출판 국제.
- 김윤희. (2002). 최근 국내의 패션에 나타난 느리게 살기 운동의 영향. *복식*, 52(6), 165-179.
- 나영원. (2003). *복식에 표현된 트랜스포메이션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빅터, 파파넥. (1985). *인간을 위한 디자인*. 현용순, 이은재 옮김 (1995). 서울: 미진사.
- 이미숙. (1997). *샤넬 스타일 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현아, 이연희, 박재욱. (2005). *현대 패션에 나타난 에코디자인*.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전소영. (1995). *현대 패션에 나타난 에콜로지 경향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전중찬. (2004). 제품디자인에 나타난 에코디자인에 관한 연구. *한국기초조형학회 연구논문집*, 15(1), 263-271.
- 조규화. (1991). *복식미학*. 서울: 수학사
- 쌩쏘, 피에르. (1998).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 김주경 옮김 (2000). 서울: 동문선.
- 패션 큰 사전 편찬위원회. (1999). *패션 큰 사전*. 서울: 교문사.
- 페니, 스파크. (1985). *20세기 디자인과 문화*. 최범 옮김 (2003). 서울: 시지락.
- Alastair-fuad-luke. (2002). *Eco-design hand book*. London: Thames & Hudson.
- Between Art & Business DESIGN. (2003). *디자인 하우스 Vol. 298*.
- collection. (2000-2005). *first VIEW*. 자료검색일 2005, 4, 10, 자료출처 <http://www.firstview.com>
- collection. (2000-2005). *CFT*. 자료검색일 2005, 4, 10, 자료출처 <http://www.cft.or.kr>
- Issey Miyake Inc. (2001). *Issey Miyake A-Poc Making*. Virta Design Museum GmbH.
- O'Mahony, M. B. & Sarah, E. (2004). *Sportstech.: revolutionary fabrics, fashion and design*. London: Thames & Hudson.
- Quinn, B. (2002). *Techno fashion*. Oxford: BERG.
- Ramakers, R. (2003). *Less+More*. Seoul: design Locus.
- The super modern wardrobe. (2001). *C.P. company*. 자료검색일 2005, 4, 10, 자료출처 <http://www.cpccompany.com>